

사이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 성 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연구위원)

과거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었던 음란물은 음란소설이나 만화, 비디오테이프 등 유형적인 외관을 갖춘 것이 대부분으로,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어느 정도 쉬운 편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무제한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매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범죄까지 유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컴컴한 동굴에서 검은색의 상자를 찾아내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인터넷이 포르노를 보기 위한 수단이나 음담패설을 나누는 공간으로, 사이버 흥등가 전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갑갑하게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명쾌하고도 분명한 대처방안은 부재하다. 특히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음란사이트를 이용한 음란물 배포는 국제화·지능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적인 유해행위를 공적인 채널을 통해 추적해하고, 단속을 더 확대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계당국의 전문 인력도 부족하지만, 기술 싸움으로도 뒤쳐지는 경우가 많다. 관계당국은 업무상, 또는 사명감으로 방어 또는 단속에 급급한 반면, 음란사이트 개설자는 공격적이고, 상업주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민간의 자율 규제에 맡기자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청소년의 문화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닌 만큼, 컴퓨터 문화를 선도할 자발적인 모니터링 모임을 확대,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비롯한 청소년관련 기관의 정보감시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적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차단사업을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는 식의 자율규제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정보통신 윤리성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역시 정보통신 윤리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해야 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채팅사이트는 사이버 폴리스, 사이버 강제도를 마련하여 네티즌이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이요, 부모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이며, 부모자녀간의 신뢰와 관심이다. 많은 부모들은 사이버 세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혹시 자녀가 좋지 않은 세계로 빠져들까 불안해한다. 그래서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지만,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더욱 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며, 자녀들은 부모의 제재에 대해 강한 반발과 불신감을 갖게 되고,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되기 쉬워진다.

예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이버 음란물 노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내용 또는 해야 할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모양새 밖에는 안될지라도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부모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우리 아이는 착해서 문제없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 문제없다’는 생각인데,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면 호기심으로 때로는 분위기에 휩쓸려,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당하지 않기 위해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은 통신과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CD-Rom을 이용하거나 PC방에 가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 음란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음란물을 100% 막는다는 생각 역시 잘못된 것으로, 음란사이트는 하루에도 수백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일단 자녀들이 온라인 상 위험에 처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징후를 알아두도록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컴퓨터 작동과 기본적인 활용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음란물이 인쇄된 프린트물이 발견된다거나 은색(정품)이 아닌 황금색이나 청색 등 색깔이 다른 CD롬이 발견된다거나, 신용카드 내역에 영문으로 된 알 수 없는 항목, 이를테면 청구업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Web-site 등으로 적혀 있는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음란사이트는 무료임을 가장해 가입을 유도하고, 단지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만, 음란사이트의 회원으로 일단 가입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비가 결제되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매우 어려워 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오랜 동안 자신만의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음란 사이

트에 접속하거나 성 관련 채팅에 빠져드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이 보관하거나 디스켓이나 즐겨찾기 등에서 검색한 자료가 'GIF'나 'JPG' 등으로 끝나는 그래픽 파일 등이 많은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음란 파일이 일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컴퓨터는 가족 공용의 공간에 설치하여 가족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부모가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하는데, 전화는 PC통신, 인터넷에 비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음란물, 사행심 조장 등 불건전한 정보 유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세째, 자녀들이 사이버섹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징후를 알아두도록 한다. 사이버 섹스중독은 상대와 온라인 섹스, 폰섹스 등에 탐닉하는 것으로, 일종의 충동조절장애이며, 마약이나 알콜중독과 같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온라인 상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을 조절해 나가기 어려워진다.

다음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되면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분류된다(www.wayo.net).

- 온라인 섹스를 위해 거의 매일 성인 채팅룸을 찾아다닌다.
- 다음 번엔 보다 나은 온라인 섹스 파트너를 만나 더 큰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온라인 섹스가 때로는 폰섹스나 실제 섹스로 이어진다.
- 자신의 섹스 상대방(아내, 남편, 애인)에게 온라인 섹스 사실을 숨긴다.
- 온라인 섹스를 하는 도중 자위행위를 한다.
- 사이버 섹스의 성적 쾌감을 더 선호해서, 실제 섹스를 멀리하게 된다.

넷째, 바른 성교육을 하여,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더라도 옳고 그릇됨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포르노는 단지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으로써 '성'의 가치를 비하시키고 왜곡시키고, 변태성욕자의 행동이 정상인 듯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여성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고 있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포르노 같은 음란매체에 시간과 정신을 온통 뺏기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성을 진짜인냥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 역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기 쉽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성

충동을 느끼게 되기 쉽다. 따라서 개방된 공간에서의 활기찬 활동은 성적인 충동과 욕구를 잊게 해주며, 더 나아가 다른 생활의 기쁨을 느끼게 될 수 있으므로 운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을 하도록 권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녀가 음란물을 보다가 부모에게 들킨 경우, 부모 자녀가 서로 놀라면서, 자녀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부모는 당혹감과 불안, 실망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또는 부모가 자녀가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부모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 말고, 이러한 현실이 보편적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낫다. 돈만 벌려는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건네거나 음란물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가 먼저 안절부절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방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사후라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부모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자녀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가상 세계에서 취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자녀보다 앞서서 인터넷 사용 실습과 법칙에 대해 알고, 자녀를 리드해 나가도록 하며, 컴퓨터 세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주고, 유익하고 흥미있는 사이트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통신상의 윤리나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이를테면, 개인이나 가족에 관한 신상 자료를 공개할 경우, 초래되는 부작용에 대해 미리 주지시킴으로써, 함부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컴퓨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 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만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함께 의논하도록 요구하고, 컴퓨터를 하다가 누군가가 언쟁을 걸어오더라도 이에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로부터 컴퓨터를 배우고, 자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자녀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

이 외에도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서, 얼마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얼마나 대화방에 접속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알아두도록 한다. 또한, 컴퓨터 사용시간이 너무 과한 경우, 자녀 나름대로의 사용 규칙을 정해보도록 하고, 일주일에 며칠을 컴퓨터 사용 일로 정해서 통제를 하거나 사용시간을 줄이거나, 알람이나 타이

머를 이용해서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자녀에게 제시해 본다. 부모는 자녀가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대를 파악하여, 그 시간대에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이에 참여시킴으로써 컴퓨터 사용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시도해 본다.

이상, 현대사회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컴퓨터가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컴퓨터내 유해정보 퇴출을 위한 범국민적인 정보 감시의 활성화와 관련업체 전문가의 충지를 모아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좋은 부모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